

최악의 시대, 최고의 복음제자로 선 이사야 -복음으로 여는 이사야-

이사야7:14, 마태복음1:23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통하고 기도할 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 팔자에 빠져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평생을 살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자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최고의 복음을 발견한 놀라운 선지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구약성경의 그 어떤 성경보다 자세히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한 말씀인 이사야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다’이다. 이름 자체가 복음적이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꾸지람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은 복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지난주에 신앙의 단계에는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도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매를 맞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 지금 막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조금만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리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때가 있다. 초특급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녀 중에도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자녀가 있다. 그런 아이에게는 꾸지람할 필요가 없다. 맞지 않았는데도 먼저 잘못을 알고 먼저 회개하기 때문이다. 또,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엑스트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임을 믿기를 바란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237 나라와 5000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수백 년, 수천 년 후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영적서밋이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시대를 살리는 6가지 언약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이 6가지 언약적인 도구는 Leverage(지렛대), Vessel(그릇), Transmission(전달), Nobody(아무도 없음), Platform(중심), Outsourcing(위탁)이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1. 첫 번째로,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다섯 명의 왕을 섬겼는데, 웃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하였고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탈무

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두 동강이나 순교하였다고 한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지내고 숫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며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RUTC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악행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다. 그 첫 단계가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제자가 되는 것이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돕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복지와 NGO이다. 이러한 구제와 봉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돕고 살리는 RUTC 운동이다. 모든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복음과 전문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RUTC 운동이다.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에 닥칠 재앙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당시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조금씩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상태는 결국 재앙과 전쟁과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도 건강도 사업도 영적인 것도 작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고 막지 못하면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리 보는 영적인 눈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 영적인 리더였다.

(3) 주변에 강대국인 앗수르와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언약을 놓치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주변을 이길 수 없었다. 애굽의 노예시대부터 광야시대, 가나안시대에도 주변에는 항상 많은 적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이사야의 아들이 아끼기 때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사야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이사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급히 노략질하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 받을 것 이라는 증거로,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급히 노략질하다)로 짓게 하셨다. 우리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후대는 저주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

(4)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를 거기에 찬탄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경제나 상도덕이 타락했다는 것이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짜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이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공직자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최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은 징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함정과 틀, 울무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결코 징벌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전도와 관계되는 말씀들로 그 답을 주고 있다.

2. 큰 두 번째이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악한 시대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복음과 전도에 관계되는 말씀들이다. 이사회에서는 천국의 모습, 심판 주님의 재림,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회복, 금식과 안식일의 중요성 등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 첫 째로, 이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할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도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

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고, 결국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였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②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과 역할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씀은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즉, '놀라운 상담가' 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도 상담해 줄수 있는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팀사역이다. 앞으로 참사랑RUTC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 상담소'도 만들어야 하겠다.

③ 그리스도는 이새의 즐기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다. '이새의 즐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모든 것이 맞아이지만 그리스도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④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이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 이사회에서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복음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한다.

① 첫 번째로 복음제자들의 자원하는 고백이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이 고백은 전도캠프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구호가 되어야 하겠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어느 현장이든지 그 현장에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전도와 전도캠프, RUTC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고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황폐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남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제자이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겠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나라 하시더라' 우리는 그루터기, 램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램넌트의 응답이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가 되는 것이다.

③ 복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서밋 타임을 누리기를 바란다.

④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겠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⑤ 복음운동이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결론으로 오늘도 이사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내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면 이사회처럼 천년의 응답과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현장에 가기 전에 응답이 미리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록하고 기도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참사랑RUTC를 위한 헌금, 자격증, 전문성 준비를 시작해보기를 바란다.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RUTC 모습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기업이다. 200개의 협동조합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 모든 성실한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도와준다. 우리 교단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분야에서 후대들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